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르즈 루오(1871-1958)  
'Miserere' 판화 연작 중 31번째 판화

[제1독서] ..... 사도 14,21-27

[화답송] ..... 시편 145(144),8-9.10-11.12-13-14  
(◎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 묵시 21,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 요한 13,31-33-34-35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5] 나는 포도나무요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파견성가: [138] 만왕의 왕

##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방에서 <sup>31</sup>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sup>32</sup>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sup>33</sup>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sup>34</sup>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sup>35</sup>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When Judas had left them,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and God will glorify him at once.  
 My children,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while longer.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This is how all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 †묵상

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이 상대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당신의 생명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곧 ‘하느님의 영광’이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하시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한 이 삼위일체 신비가 모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과 같은 성령을 선물하시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성령을 또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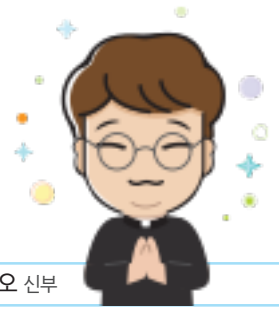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때,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며 사랑을 나누면 둘중 하나겠지..  
 미쳤거나..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임의준 신부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11)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 정 바오로 성당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말, 주보를 통해서 부임 인터뷰와 함께 인사를 드린지가 벌써 4개월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 이름들과 얼굴들이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을 보니, 시간이 마냥 흘러가기만 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보를 통해 나누었던 첫 이야기 중에 성소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을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주보를 통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는 또 다시 “성소”(거룩한 부르심)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신부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수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소주일이면 으레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바로 저 말씀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것보다 먼저 들었으면 하는 말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증명할 필요 없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눈에 예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11)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때에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며 저에게까지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시급히 들려줘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경쟁에 들어서도록 부추깁니다. 더 가지라고, 더 잘 꾸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저 사랑의 근원을 잊고서는, 마실수록 더 목마른 세상이 주는 사랑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풍요 속에서 빈곤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육상 선수도 영양실조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자신이 육상선수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다면 트랙을 향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소자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다면 복음적 삶을 향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증명할 필요 없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눈에 예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무한한 은총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소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힘을 다해 사랑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으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 ME 부부 새신 교육 · 피정

본당 ME 부부들을 위한 새신 교육 · 피정이 지난 12일(일)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과 강창홍 바오로 · 강귀순 데레사 부부의 지도로 개최되었다.

강 바오로와 강 데레사 부부는 WWME의 한국어 그룹인 제 19 구역의 대표 부부로서 참석한 부부들이 더욱 깊은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혼인 생활과 생명력 있고 활기찬 부부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석자들은 피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더욱 더 행복한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피정은 부부의 사랑이 우리 사회의 표본이 되어 세상에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에 중점을 둔 시간이었다.



## 꾸르실료 성가정작은자매회방문

평신도 사도직 꾸르실료 30여 명이 지난 11일(토) 성 가정 작은 자매회를 방문해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꾸르실료는 매 해 정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수녀원을 위해 잔디 정리와 발갈기 그리고 잡초 정리 등을 돕고 있는데 이번 봉사는 특히 여성 제17차 꾸르실리스따들과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일정이 끝난 후 수녀님들의 감사 인사를 듣고 점심을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제11차 미동중부 성령대회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2코린 3,17)

일시: 5월 26일(주일) 오후 1시 30 - 오후 9시  
5월 27일 (월-메모리얼데이)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주임: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강사: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티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주제 : 승리하는 성령

주최: 미동중부 성령새신 봉사회  
문의: 이해원 요세피나 (301) 356-1585  
회장 박성환 요셉 (443) 520-4420  
지도신부: 김종성 베드로 신부, 미동중부 사제협의회

## 성모의 밤

일시 : 5월 24일(금) 오후 7:30



CCD News

Jr. High **BASH 2019**

**O**n May 11, 21 St. Paul Chung Parish youths accompanied by Rev. Kang and five CCD teachers participated in BASH 2019, an annual ev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at Bishop O'Connell High School in Arlington. This year, in spite of chilly and overcast weather, more than 1,000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junior high students (6<sup>th</sup>-8<sup>th</sup> graders), adult leaders and volunteers filled the school's auditorium to celebrate our Catholic faith and love of the Lord. The event included music, many games, vocation talks,

national Catholic youth speakers, confessions, Sunday Vigil Mass, and food. Jackie Francois Angel and Paul J. Kim, both well-known Catholic youth speakers, provided inspirational speeches and encouraged young people to open their hearts with honest prayers to God. During his homily, Fr. Thomas Ferguson, Vicar General and main celebrant of Vigil Mass, suggested his interpretation of BASH and asked participants to remember we are all "Beloved And Saved by Him". Hope to see more young people next year's BASH.

• Yunchong Boyle(Clare), CCD Asst.principal

**BASH 2019 Reflection**

→ Continue to the next page



**GABRIELLA CHOI**  
6<sup>th</sup> grade

The Junior High Bash was a blast!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as much fun as I had at this event. The Mass was beautiful and the guest speakers made it fun and entertaining to learn about my faith. I learned how to open my heart to God and to remember that God always loves me. I would recommend the Junior High Bash to anyone who's willing to learn more about their faith.



**MATTHEW HAN**  
6<sup>th</sup> grade

I thought it would be boring but it was actually really fun. They had fun activities,ride, and games and the part were someone came out and told us funny stuff, cool stuff, and holy stuff was the probably the best par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connect with God.



**WILLIAM PARK**  
7<sup>th</sup> grade

I felt like a proud catholic after the speaker encouraged us to open our hearts to Jesus. The bash was a good way to have fun and be closer to god.



**PAUL HWANG**  
7<sup>th</sup> grade

The bash was a really fun event that I could participate in. I had a great time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doing stuff on the bus, having mass, and PJK(one of the speakers) joining us in that day. I hope I can go again next year and enjoy it again.



**DANTE HUAMAN**  
7<sup>th</sup> grade

During this bash, I felt connected with many other people, especially those at our church. Although some parts weren't the most exciting, I felt the whole event to be somewhat motivating.



**DANIEL KIM**  
7<sup>th</sup> grade

The bash was alright and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I would go to next year. However, in the bash I didn't feel motivated by what that dude said. I felt the same as before.



**HANNAH LEE**  
7<sup>th</sup> grade

The bash was a new experience for me. I honestly thought the speeches would be extremely boring, but I loved how they recruited such funny yet inspiring people to teach us in God's ways. One of the speakers had told us to open our hearts to God, and he really helped me realize that I'm the only one that can actually help myself with letting God in my heart.



**NURI HAN**  
7<sup>th</sup> grade

The junior high bash was a lot more fun than I thought it would be. My favorite part was probably the rock wall, but I enjoyed listening to the speakers too. When they spoke, it wasn't boring and what they said made me think about my life. I'm definitely going back next year.



Jr. High **BASH 2019**

FOLLOW

**MALCOLM BOYLE**7<sup>th</sup> grade

BASH really exceeded my expectations. There were rides and games and even the talks were interesting! The talks were actually some of my favorite parts of BASH. The male speaker, Paul J. Kim talked to us how we should stay with our faith during life. His talk was well constructed and he really detailed why we need friends to help us through our spiritual journey. I encourage students from 6<sup>th</sup>, 7<sup>th</sup>, and 8<sup>th</sup> grades to go to this event next year. They will enjoy it and have a good time.

## ANNOUNCEMENT

- 1 **May 26 : No Sunday School** (Memorial Day Weekend)
- 2 **May 19 - June 16 :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Service**  
at the Hasang building lobby
- 3 **June 1 : First Holy Communion Class Workshop**  
(2pm-4pm at the Hasang Bldg. Room #106)
- 4 **June 2 : Annual CCD Outdoor Mass & End-of-Year Picnic**  
(mor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via email.)

**FRANCIS CHOI**7<sup>th</sup> grade

Like last year, the bash was an exciting event. The speeches were intriguing and motivated me to become closer to our Lord. The food there was tasty and the events were fun. They had inflatable carnival activities. Paul J Kim helped us open up our hearts to the lord with an honest prayer. I got to know what it meant to be a proud Catholic at the bash and I look forward to going next year!!!

**SEAN PARK**7<sup>th</sup> grade

I think the bash was ok. I have been there once so I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I think the bash could have been better. In my opinion the speaker was a little too long and a lot of things were rushed. Otherwise I think it was good.

**SIMON LEE**7<sup>th</sup> grade

We had a fun time doing activities like playing dodge ball, attempting a free throw tournament, doing the exciting games outside, and so much more! The main theme for this year was to Rejoice. We had pizza and ice cream as well, bu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ash was the Mass. Several priests were there and we had a chance to pray, praise, and celebrate the mass with the priests and Jackie Francois the chorister. We ended the day with a comedian named Paul J. Kim teaching us the reason to rejoice by telling his story of how "opened the door for Jesus". Paul J. Kim, who is also a talented beat-boxer, happily ended our day at the bash.

**EMILY PAK**7<sup>th</sup> grade

The bash was fun. I enjoyed hearing and watching the speakers. The activities they had were entertaining.

**1 성모의 밤**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 7:30
- 꽃 봉헌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5월 19일(일) 10시 미사 후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하상회 / 안나회 모임**

- 일시 : 5월 19일(일), 장터 한마당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5월 19일(일) 오후 11:40(하상관 #4,5)

**5 성인 견진 성사반 교육**

- 강사 :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
- 일시 : 5월 22일(수) 오후 7-9시(A-1,2)
- 문의 : 안윤민 교육부장 (571) 275-0691

**6 K of C 모임**

- 일시 : 5월 26일(일) 오전 11:30(나눔터)

**7 복사단 모임**

- 일시 : 5월 26일(일) 오후 1시(B-1,2)

**8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안내**

- 일시 : 5월 27일(월) 오전 11시(미사 집전 : Fr. John O'Donohue)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문의 : (703)323-5202/www.fmpark.com

**9 하상 성인학교 메모리얼 데이 휴강 안내**

- 휴강일 : 5월 24일(금), 5월 28일(화)

**10 루카회 모임(60대 교우)**

- 일시 : 5월 26일(일) 오전 11:30(B-3)

**11 2019 - 2020년 주일학교 등록**

- 등록 : 등록비 \$80/ 6월 9일 마감
- 장소 : 하상관 교무실(매 주일 오전 10시-오전 11:30)

**12 주일학교 휴교**

- 5월 19일(일)
- 5월 26일(일) - 메모리얼 데이 연휴

**13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 6월 1일(토), 6월 2일(일)
- 장소 : 성당 친교실, 주차장
- 물품 기증 : 5월 12일(일) - 5월 26일(일)까지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14 제11차 동중부 성령대회**

- 성령께 의탁하며 성령 안에서 기쁜 신앙 생활을 하고자 원하시는 교우분들을 말씀과 찬양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 일시 : 5월 26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7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강사 : 전동혁 베드로신부(신시내터 한인 성당 주임신부)
- 주제 : 승리하는 성령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회비 \$30)
- 문의 : 이해원 요세피아 (301)356-1585

**15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5월 31일(금) 오후 8시, 친교실(A-1,2,3)
- 꾸르실리스따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K of C 장학금 에세이 콘테스트**

- 에세이 제목 : As a Korean Catholic American, what does diversity mean to you?
- 마감 : 5월 19일(일) / 발표 : 6월 2일(일)
- 접수 : 성당 사무실, 회의실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17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 5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연락처 :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18 5월 성모성월 성물부 세일**

- 5월 동안 성물을 20% 세일하니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19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원고 모집**

- 신앙과 관련된 수필, 신앙수기, 시, 논단 및 청소년 발언대, 우리반 자랑 등 어떠한 글이라도 환영합니다.
- 문의 : 전영완 루카(출판부) 571-217-9595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5월 19일(일)	부활 제5주일	친교 한마당(오전 10시 미사 후, 본당 뒤 주차장), 안나회/하상회(오전 11:30, 장터 한마당), 꾸리아 월례회의(오후 1시, 하상관 #4), 주일학교 없음
20일(월)	부활 제5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1일(화)	부활 제5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2일(수)	부활 제5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성인 견진교리(오후 7시)
23일(목)	부활 제5주간	평일미사 (오전 6시)
24일(금)	부활 제5주간	하상 성인학교 휴강, 성모의 밤(오후 7:30)
25일(토)	부활 제5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M.E. 봉사자 모임(오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휴강
5월 26일(일)	부활 제6주일	K of C 모임(오전 11:30, 나눔터), 요한회 없음, 루카회(오전 11:30, B-3),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동중부 성령대회(오후 1:30), 주일학교 없음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Diocesan Retired Priest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5주간 : 시편 19-27, 1 코린 9**

**KACM TV 하이лай트**

- 5월 23일(목) 오후 5:00-6:00 Cox Ch.30, 830
- 5월 24일(금) 저녁 8:00-9:00 Fios Ch. 30
- 5월 26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7 : 포도원, 끝 없는 평원 길을 걸어 '나헤라-아스프라'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5월 12일(부활 제4주일)

주일헌금	\$7,516.00
교무금	\$6,8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0.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2,725.00
<b>합계</b>	<b>\$17,051.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배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벌바리),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벌바리), 김민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검(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점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승현(바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기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렐),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병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백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정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델(마카렐),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견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로),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요한)

※ 기도해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예비 펫 그루밍</b>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703-679-89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